



발행인 허재준
편집인 강신혁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3년 12월 12일

2023년 하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2024년 노동시장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2023년 노동시장은 작년 고용회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기저효과, 약 100천~150천 명 인구 증가, 그리고 올해 높지 않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는 336천 명 증가(1~10월)하고, 10월 기준 실업률은 2.1%, 고용률은 63.3%를 기록하며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 주로 여성과 고령층에서 높은 고용 증가를 보였으며, 20대 및 30~40대 남성은 고용이 둔화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강세를,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약세를 보였다. 본원은 ① 내년까지는 서늘했던 기저효과와 인구영향이 약할 수 있고, ②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 증가는 지속될 수 있으며 ③ 수출 중심 경기회복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노동시장을 전망한다.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57천 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연간 62.9%, 그리고 실업률은 연간 2.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 2023년 노동시장 개관

본고에서는 2023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2024년 노동시장을 전망한다. 2023년 노동시장은 견고했던 상반기 노동시장 상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약 816천 명의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저효과, 약 100천~150천 명 정도의 인구 증가, 그리고 약 0.9~1.4%의 높지 않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23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36천 명 증가(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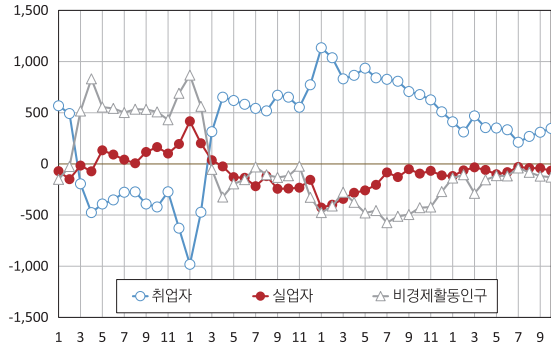
월)했다. 10월 기준 실업률은 2.1%, 고용률은 63.3%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이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원은 ① 내년까지는 기저효과와 인구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② 여성 및 고령층 고용 증가는 지속될 수 있으며 ③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노동시장을 전망하였다.

고용지표 변화를 2023년 1~10월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취업자는 336천 명 증가했고,

견고했던 상반기 상황을
이어받은 하반기 노동시장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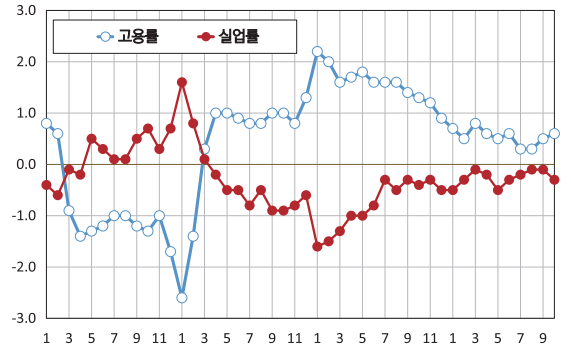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고용률, 실업률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동 기간 감소했다.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했고, 실업률은 0.2%p 감소했다. 상반기까지 고용률 증가폭, 실업률 감소폭이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8월 이후 고용률은 증가폭, 실업률은 감소폭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그림 2 참조).

올해 노동시장은 여성 고용의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 고용 증가, 제조업 고용 둔화,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 회복세로 요약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고용이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늘어난 고용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진출이 활발해진 점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연령대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취업자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 중이다. 2023년에는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줄었으나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이 과거에 비해 다변화됐다는 특징이 있다.

제조업 고용은 소폭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이나 상품 수출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과거 조선업 위기 때처럼 급격하고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서비스업 고용은 회복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대면서비스업 상당수는 회복세를 보인 후 서서히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드는 중이다.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증가 중이며 증가폭도 크다. 비대면 특수가 끝난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의 기저 영향도 더해져 감소했고, 부동산업 고용도 부진하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전 산업 중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산업이다.

이후의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문별 노동시장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참가, 실업률, 고용률 및 취업자 동향을 연령, 종사상지위,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23년 노동시장 평가를 기반으로 2024년 고용을 전망하였다.

II. 2023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여성과 고령자의 실업률 감소

2023년 분기별 실업률은 1분기 3.2%, 2분기 2.7%, 3분기 2.3%로 매분기 감소하였다. 상반기 실업률의 경우, 청년층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주로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연령대별 차지하는 비중 증감 변화를 보았을 때, 청년층 실업률은 2분기 감소(-0.18%p)로 전환 후 3분기(-0.16%p)까지 유지하였다. 60세 이상 실업률은 3분기(0.09%p)에 증가로 전환되었지만, 1분기(-0.25%p)에 크게 감소했던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30대와 40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3분기에 둔화되고 있으며, 50대는 상반기

여성 고용 증가, 고령 고용 증가,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회복으로
요약 가능한 2023년 노동시장

30대 여성과 고령층
실업률 감소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3분기에는 증가로 전환하였다.

2023년 상반기는 30대 여성과 고령층에서 크게 감소세를 보임과 동시에 하반기에도 유사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여성 실업률은 0.5%p, 남성은 0.2%p 감소하였다. 3분기 여성 실업률은 2.3%로서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하였지만 여성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추세를 이어갔다. 하반기 역시 여성 실업률 감소폭은 남성의 두 배에 달했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을 벗어난 2021년 1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낮은 비경제활동인구를 기록했다(3분기, 101천 명).

30대 여성은 2023년 실업률 감소를 견인하는 주요 집단이다. 30대 여성의 실업률 감소폭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크지 않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30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빠르게 취업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60세 이상 여성은 상반기에 실업률이 감소하였으나 60~64세 실업률이 증가하여 3분기에는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23년 상반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3분기에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23년 실업자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축소되고 있다. 2023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8천 명 감소했으며, 이후 3분기에는 6천 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하반기 감소폭이 축소되면서(-109천 명) 2023년 1분기에 증가로 전환하였지만(+88천 명),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둔화세(+16천 명)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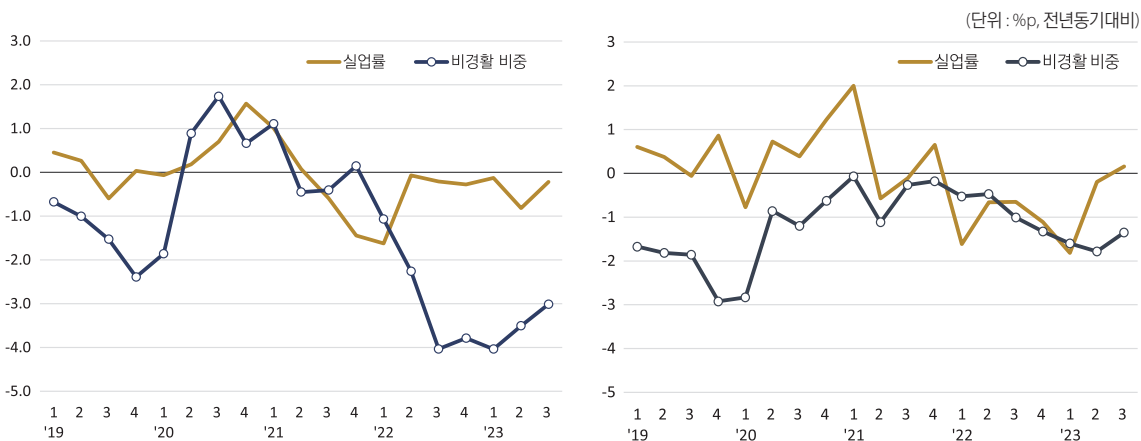
실직 사유별 실업자의 경우, 개인 사유로 인한 실업자 수는 상반기에 증가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작업 여건의 경우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되었다가 3분기는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비자발적 사유는 2023년 상반기 감소폭이 축소되다가 3분기에는 직장 여건에서 증가로 전환하였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상반기 확장실업률은 2.1%p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는 비교적 감소폭이 축소된 1.3%p 감소를 보였다. 이는 2023년 상반기 실업률 감소를 견인한 잠재활동경제인구의 감소세가 하반기에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시간관련 추가취업자는 2022년 크게 감소세(-0.8%p)를 보이다가 2023년 상반기 들어 감소세(-0.5%p)가 축소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2022년 크게 감소한 4.2%p의 확장실업률이 2023년 상반기에 2.6%p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인 2.4%p를 유지하고 있

하반기 확장실업률은
상반기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그림 3] 30대(좌) 및 60세 이상(우) 여성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감



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각각의 여성 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 이는 시간관련 추가취업자가 2023년 상반기에 증가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도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30~59세 연령대는 2022년 2.1%p의 확장실업률 감소세가 2023년 상반기에 1.5%p로 감소하였고 하반기에 1.0%p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154천 명 감소하였고, 3분기에는 81천 명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경우 상반기에는 81천 명 증가하였고, 3분기에는 110천 명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여성은 235천 명으로 감소하면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3분기는 191천 명으로 감소세가 줄어들었으나 2023년은 감소 추세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에 남성은 육아·가사, 통학, 쉬었음에서 증가하면서 3분기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여성의 경우 상반기에 육아·가사, 취업준비, 연로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3분기에도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며, 쉬었음은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쉬었음의 경우 남성의 증가폭은 여성의 두 배에 달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를 살펴보았을 때, 2023년 상반기 118천 명 감소하였지만 2분기에 감소폭이 축소되어 3분기에도 2분기와 같은 양상을 유지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상반기에 각각 61천 명, 58천 명 감소하였고, 남성은 3분기에 감소세(-12천 명)가 축소되었지만, 여성은 감소세(-42천 명)를 유지하고 있다.

쉬었음의 증가는 주로 20대와 6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20대는 2023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0천 명 증가하였고 3분기에는 19천 명 증가하여 최근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었다. 직장을 원하지 않았던 20대는 상반기에 51천 명 증가하였고, 직장을 원했던 20대는 15천 명 감소하였다. 3분기에는 각각 41천 명 증가와 6천 명 감소로 둔화세를 보였다.

60세 이상 쉬었음의 경우 상반기 108천 명 증가하였고, 3분기에는 28천 명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쉬었음과 연로의 증감 변화가 반대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고령층의 쉬었음은 연로의 이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변화 양상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2. 연령별 고용 동향 : 20대 둔화, 30대 여성 양호, 60대 이상 호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체 연령 중 60대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 중이다. 60대 이상 인구증가분의 상당수가 취업자 증가로 이어져,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0대는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취업자가 증가하여,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로 전환했으나, 2021년부터 청년 고용의 양적지표가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세부 연령별로 고용동향을 자세히 살펴본다. 2022년에는 20대 인구가 130천 명 감소했지만, 상당한 규모로 취업자가 증가했었다. 2023년에는 인구가 약 190천 명 감소하는 가운데 1~10월 평균 기준 20대 취업자가 약 90천 명 감소했다. 20대 전체 고용률이 7월 감소로 전환했다가 8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대 초반 고용률은 소폭 감소했고, 20대 후반 고용률은 1.0%p 증가 수준에서 횡보 중이다.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을 구분하여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 변화를 살펴본다. 도소매업은 청년층을 비롯하여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20대 초반과 후반 모두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2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간호 인력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지속됐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고용이 감소 중이다.

20대 초반 고용을 살펴볼 때 재학 중 일자리 경험(아르바이트 등)의 영향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졸업여부별로 취업자 변화를 살펴본다. 재학 중인 청년 취업자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취업이 용이한 내수 서비스업 취업 비중이 높다. 이에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동향 전반이 20대 초반 재학자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전자의 산업에서는 2023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에서
감소세가 뚜렷함

〈표 1〉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1~10월 평균		
		2021	2022	2023
15~29세	인구	-138	-201	-178
	취업자	94	146	-103
	실업률	-1.0	-1.6	-0.6
	고용률	1.7	2.7	-0.2
30대	인구	-147	-128	-79
	취업자	-121	45	50
	실업률	-0.1	-0.6	-0.2
	고용률	-0.1	2.0	1.6
40대	인구	-71	-76	-118
	취업자	-41	10	-56
	실업률	-0.1	-0.4	-0.1
	고용률	0.2	0.8	0.4
50대	인구	-8	35	7
	취업자	42	216	64
	실업률	-0.3	-1.0	0.0
	고용률	0.6	2.2	0.7
60세 이상	인구	659	560	511
	취업자	334	450	382
	실업률	0.2	-1.0	-0.4
	고용률	0.4	1.6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중 취업자가 증가하나 증가폭이 둔화 중이고, 후자의 산업에서는 연중 취업자가 감소하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20대 초반에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비중, 여성 졸업자의 비중이 높다. 그 때문에 간호사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변화폭이 크다. 2022년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영향이 2023년에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후반 연령대는 다양한 최종학력 졸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력별로 고용지표를 살펴본다. 초대졸, 대졸 이상 졸업자의 고용률은 1분기에 감소하다가 2분기에 증가로 전환됐다.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률은 반대로 1분기에 증가했다가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됐다. 특히 최근 들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20대 후반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이 둔화됐다.

30대는 여성 위주로 고용률이 증가했다. 특히 인구가 감소 중인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여성 취업자

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1~10월 평균 4.3%p 증가했다. 30대 여성 경제활동상태에 주요 변인인 혼인여부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기혼여성, 미혼여성 모두에서 고용률이 증가했고, 특히 30대 후반 미혼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변화도 특징적이다. 30대 후반 미혼여성의 1~10월 평균 경제활동참여율은 80.2%로 전년 동기보다 5.7%p 증가했다. 30대 후반 기혼여성 역시 경제활동참여율이 꾸준히 증가세이다.

40대 취업자는 감소했으나 인구가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고용률은 소폭 증가했다. 여성은 고용률이 증가했으나 남성은 고용률이 감소했다. 남성 고용의 감소는 인구 감소폭이 큰 40대 후반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종사 비중이 높은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가 고루 감소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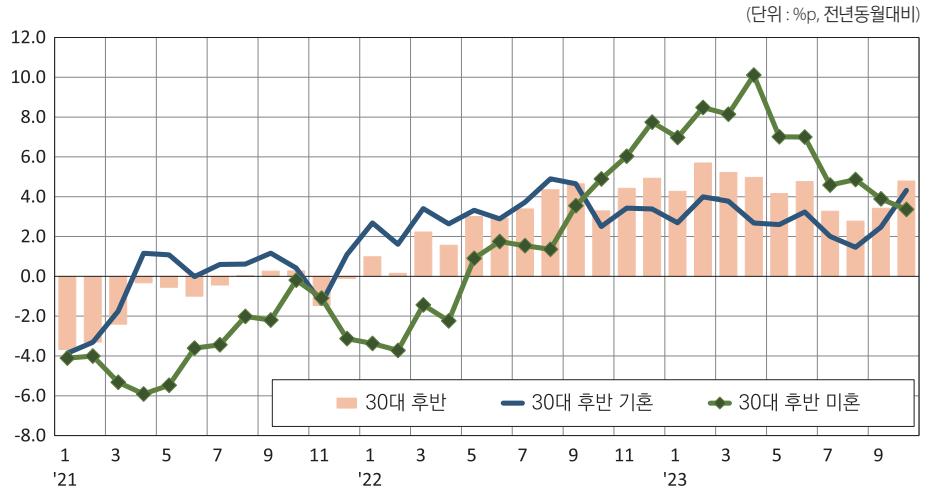
50대 고용은 30대와 성별 고용 상황이 유사하고, 산업별 고용상황은 60대 고령층과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다. 남성 고용률은 거의 증가하고 있지 않고, 여성 고용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50대 여성은 돌봄 관련 고용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했고 종사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취업자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두 산업에서의 고용증가가 60대 이상 고령층 여성 고용 변화와 유사하다.

과거 몇 년간 주로 65세 이상 임시직 공공행정, 보건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에 주를 이루면서 직접일자리사업 영향이 이 연령대 고용변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올해는 노인 일자리사업 영향이 다소 줄어들면서 6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도소매, 사업시설, 60대 후반은 보건복지,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제조업, 농림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임시직 취업자 산업별 비중이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산업에서는 줄어들고, 숙박음식, 제조업, 운수창고 등 주로 민간 일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산업에서는 늘었다. 고령층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고용 증가가 점차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등에서 20대 후반 졸업자 고용 둔화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 증가

[그림 4] 30대 후반(35~39세) 여성 혼인여부별 고용률 증감 추이



주: 혼인상태 변수 답변 중 '미혼', '사별', '이혼'을 미혼으로, '유배우'를 기혼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종사상지위별 고용 동향: 상용직 양호, 임시일용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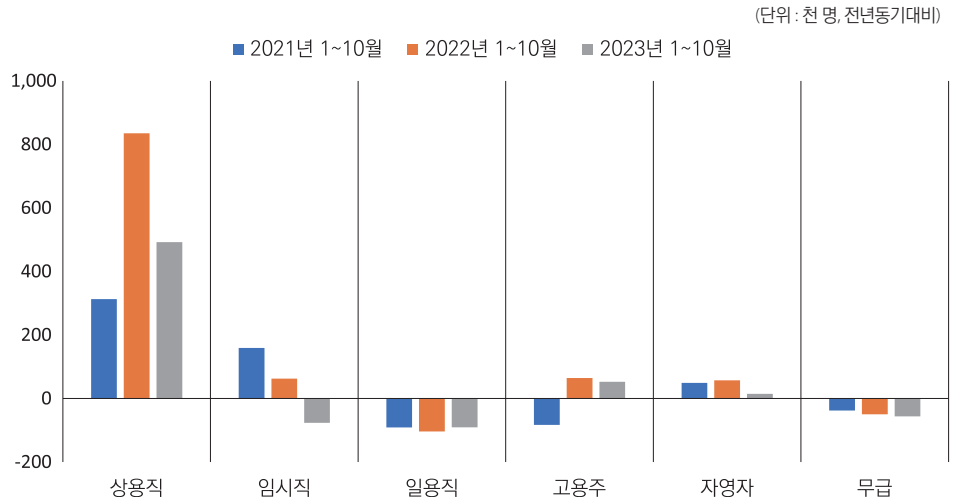
상용직 위주 취업자 증가 지속

취업자 수 기준으로 고용 변동폭의 대부분은 상용직이다. 상용직 변동폭에 비하면 다른 종사상지위 취업자의 변화분은 매우 작아 전체 고용 변동폭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하다. 전년동기만큼은 아니지만 2023년에도 상용직이 크게 증가했다. 계절조정계열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상용직 규모보다 1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나머지 종사상지위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 수준의 고용을 회복하지 못했거나 이후 의미 있는 고용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상용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업이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서비스업도 3년 연속 상용직이 증가 중이다. 숙박음식점업 상용직은 지난해에 이어 증가했다. 업황이 좋지 못한 도소매업에서도 상용직은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상용직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임시직은 2022년 3분기에 감소로 전환된 이후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임시직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종사자의 증가폭 둔화 영향이 가장 컸다.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건설업 임시직도 감소했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이 증가한 데 반해, 임시직은 감소했다. 반면 고용 회

[그림 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복제가 충분히 나타난 음식숙박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임시직이 늘었다. 일용직은 종사자 대부분이 건설업, 제조업 종사자인데, 이들 산업에서 일용직이 감소했다.

고용주와 자영자는 1~10월 평균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 중이나 그 폭이 작다. 다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꾸준한 폭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최근 감소로 전환했다. 도소매업, 부동산업에서의 자영자 감소, 종사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 자영자 증가폭 둔화가 주된 변화이다.

4. 제조업 고용 둔화세 지속

제조업 취업자는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5만 1천 명 감소하였다. 분기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분기에 3만 7천 명, 2분기에 4만 9천 명, 3분기에는 5만 9천 명 감소하여 취업자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는 하반기 이후 매월 전월대비 감소하였다(그림 6 참조). 사업체 종사자 수도 올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2년 전년 대비 6만 6천 명 증가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4만 5천 명, 7~10월 중에는 2만 9천 명 증가하였다(그림 7 참조).

[그림 8]에는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가 나타나 있다. 제조업 피보험자는 올해 증가세를 나타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근로자가 고용보험 당연적

용 대상이 되면서 외국인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과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증가 영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8]에서 외국인 제외 제조업 피보험자 증가를 보면,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업황은 좋지 않았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의 업황이 부진했고, 수출도 감소하였다. 반도체 제조업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3.8% 감소, 2분기에 18.6% 감소하였고 3분기 들어 증가로 전환했다. 반도체 수출은 1분기 40.0%, 2분기 34.8%, 3분기 22.6% 감소하여 연중 큰 폭의 감소가 지속되었다.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업황 부진은 상당히 심했지만, 그에 비해 고용 변동은 크지 않았다. 사업체 종사자와 피보험자 모두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었으나 큰 폭의 고용 감소는 없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하반기 들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종사자 수 감소 규모는 크지 않다(7~10월 평균 약 7천 명 감소).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한 자릿수 증가이긴 하나 매월 전년동월 대비 증가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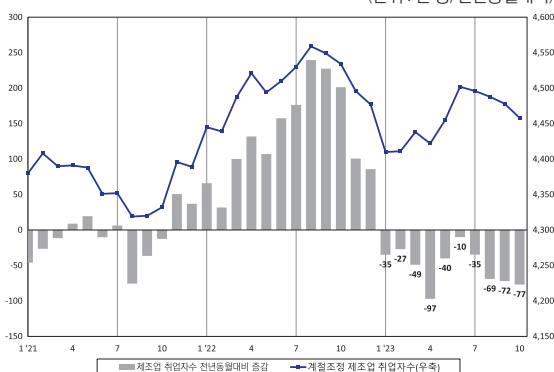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2023년에 경기 및 수출 관련 지표가 모두 양호했다. 생산 정상화 이후 대기 수요가 실현되고,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의 SUV,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수출

모든 고용 지표에서
제조업 고용 감소세

업황 약화에도 큰 폭의
고용감소는 없었던
전자제품 제조업

[그림 6] 제조업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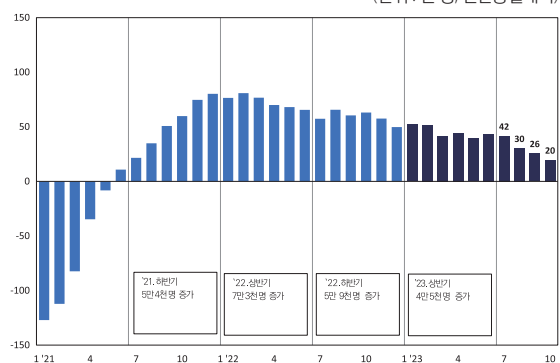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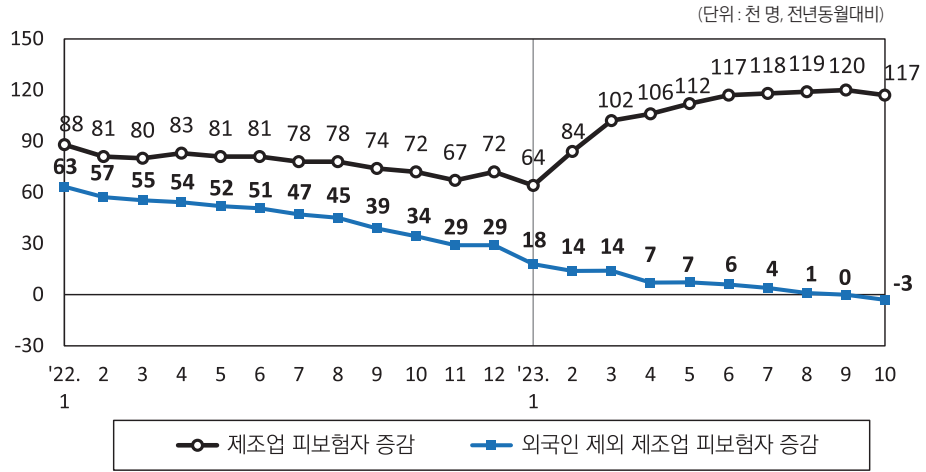
[그림 7]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추이



자료: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업황 호조로 고용 증가세를 유지한 자동차 제조업

호조세가 이어졌다. 자동차 수출은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7.9%, 2분기에 33.8%, 3분기에는 12.2% 증가했다. 업황 호조로 자동차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3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올해 초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매월 완만하게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올해 하반기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기계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은 고용 상황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업종별 고용 증감에는 내국인 종사자 고용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외국인 종사자의 고용 변동으로 인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 규모 및 방향이 내국인 종사자 수 변화 규모 및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피보험자 자료는 외국인력 확대에 의한 신규 채용 증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서의 고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인 종사자 비중이 큰 업종들은 고용 증감에서 외국인 고용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자료 간 고용 변동폭 차이도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은 고용상황 해석에 유의

에 고용 상황 파악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23년 제조업에서는 고용 둔화세가 나타났다. 다만 2022년 제조업 고용이 증가한 기저와 올해 부진했던 제조업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고용 둔화세는 완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업황 부진이 심화되었지만 큰 폭의 고용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 대다수 제조업 세부 업종들은 업황이 부진하였으나 자동차는 업황 호조가 이어져 고용도 증가했던 것,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에서 추세적인 고용 증가가 이어진 것이 제조업 고용 감소를 일부 완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양호했던 건설 경기 지표, 부진했던 건설업 고용

2023년 건설업 고용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경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10월 평균 2만 1천 명 감소하였다.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에 건설업 취업자가 각각 8만 4천 명, 3만 9천 명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올해 건설업 고용상황은 지난 2년간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고용 지표들에서도 2023년 건설업 고용 부진이 나타난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감소로 전환되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폭이 축소되다가 9~10월 중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올해의 부진했던 건설업 고용 상황은 건설기성과 건설투자 등 건설 경기 관련 지표가 연중 호조세를 유

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건설기성은 1분기 11.5%, 2분기 8.9%, 3분기 11.9% 증가했고, 9분기 연속 감소했던 건설투자도 올해 1분기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신규로 채용되는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건설업 취업자를 근속기간 별로 구분해보면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상용직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근무기간 2개월 미만)가 매월 감소하였다. 신규 채용된 건설업 임시일용직은 2023년 1~10월 평균 약 5만 8천 명 감소했다.

6.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세 지속

2023년 1~10월 평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23천 명 증가하였다. 2022년 취업자 증가폭(+612천 명)보다는 둔화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여성 취업자는 1~10월 평균 297천 명 증가했는데, 2022년에는 여성 취업자가 주로 교육, 사회복지, 보건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늘어났다면, 2023년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여성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간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던 도소매업은 2023년 1~10월 평균 45천 명 감소했는데, 상용직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고(+40천 명), 최근 들어 취업자 증가로 전환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하고, 20대 취업자는 감소하면서 세대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판매직 종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023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35만 명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2020~2021년 이후, 2022~2023년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고용수준으로 회복하여 최근에는 청년층, 서비스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운수창고업은 2022년 11월부터 취업자가 감소로 전

〈표 2〉 업종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체			여성	상용직
	2021년 1~10월	2022년 1~10월	2023년 1~10월	2023년 1~10월	2023년 1~10월
도소매업 (G)	-160	-34	-45	33	40
운수창고업 (H)	97	86	-19	-18	1
숙박음식업 (I)	-54	57	135	57	77
비대면서비스 (J-N)	172	193	126	42	80
사회서비스 (O, P, Q)	272	322	180	144	224
서비스업 전체 (G-U)	221	612	423	297	4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환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18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고용감소가 장기화되지 않고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7. 비대면서비스업의 지속적인 고용증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비대면서비스 계열 취업자는 2023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26천 명 증가하여 전년(+193천 명)보다는 다소 둔화되었다. 정보통신업은 2023년 1~10월 평균 취업자가 54천 명 증가하였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년동월대비 8만 명이 넘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만 명이 넘게 증가했으나, 기업경기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업은 1~10월 평균 16천 명 감소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중개보조원과 같은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은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9천 명 증가하였다. 2022년은 약 27천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고용이 다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보험업은 2020년, 2022년에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2021년, 2023년에는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감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21년부터 꾸준히 고용

임시일용직 신규 채용 감소로
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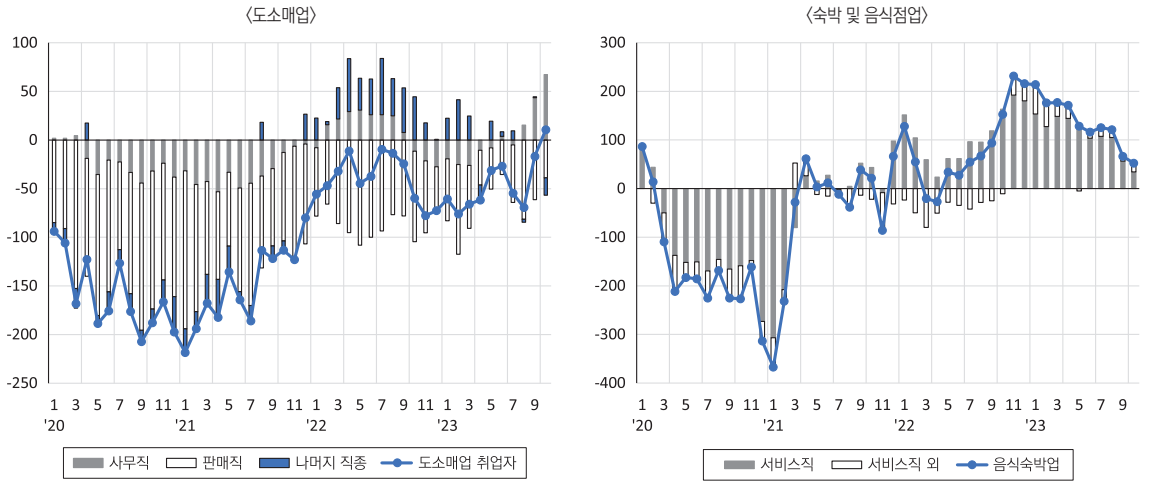
중고령층 이상 연령대를 중심으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 회복이 지속

정보통신업과 부동산업은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취업자 증가

[그림 9] 직종별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으로 2023년 1~10월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가 70천 명 증가하여 2022년 동 기간 증가폭(74천 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8. 사회서비스업 고용둔화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면/비대면서비스업과 달리 2023년 고용이 둔화된 모습이다.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80천 명 증가했으나 2021년 272천 명, 2022년 322천 명의 증가폭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2023년 1~10월 평균 2천 명 증가하여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장기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방향에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교습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의 고용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은 2020년 이후 약 5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2023년 24천 명 증가하여 절반 가까이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2020년과 21년 상반기는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단순노무직보다 관리직, 사무직 계열 취업자가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3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54천 명 증가하면서 2022년보다 다소 둔화되었다. 2022년에는 청년층 취업자 증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23년에는 감소하였고, 전년보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단순노무직 계열의 취업자 증가 비중은 줄어들고 화이트칼라, 서비스직 취업자가 늘어났다. 기존 고령층 고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일자리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표 3] 부문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1년 1~10월	2022년 1~10월	2023년 1~10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92	183	154
연령대별	15~29세	-21	57	-15
	30~59세	72	55	88
	60세 이상	141	70	81
성별	남성	29	33	25
	여성	164	150	129
종사직종	화이트칼라	34	103	91
	서비스직	47	38	55
	블루칼라	113	42	9
근속기간	1년 미만	104	111	-10
	1년 이상	93	68	166

주: 화이트칼라: 관리직+전문가+사무총사자, 블루칼라: 기능직+장차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교육서비스업은 장기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방향에 있음

공공행정, 보건복지업은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고용이 둔화되었으나 사무직, 서비스직에서 고용 증가

III. 2024년 고용 전망

2024년 전망에서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10월까지의 노동시장을 살펴본 결과, 전망보다 강건했던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연말부터, 작년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연간 816천 명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 그리고 약 100천~150천 명 정도의 15세 이상 인구증가를 근거로 고용이 조정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올해 10월까지의 강건한 노동시장 상황에 기반하여 고용이 조정되는 속도가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보다 더 천천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게 고려하게 되었다.

둘째, 2023년에 고용이 강건했던 여성과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경기적 영향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김지연(2023)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고용 증가와 함께 유(有)자녀 여성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형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였다. 고령층 고용 또한 고령층 고용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 시 마찬가지로 구조적 요인이 유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올해 20대와 30~40대 남성 고용은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은 경기와 상대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보였다.

셋째, 전망되고 있는 내년 경기회복은 고용에 정(+)의 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제한적이고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과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2.2~2.3%, 하반기에 2.0%로서 연간 2.1~2.2%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올해에 비해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¹⁾ 두 기관 모두 부문별로 경기회복이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고, 민간소비는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전반적으

로는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예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어떤 부문에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고용전망에 더 중요할 수 있다. 『노동리뷰』 8월호에서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0.9%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취업자 수 증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부문별 경기와 고용 간 관계를 논의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조업과 수출 부문 경기가 좋지 않았고,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지표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제조업과 수출은 경기와 고용 간의 관계가 약하고 경기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은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더 긴밀하고 서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상반기 0.9%의 높지 않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300천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였던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 증가 역시 규모가 제한적이고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20대 청년과 30~40대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

2024년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50천 명 증가한 총 28,480천 명, 하반기에 263천 명 증가한 28,868천 명으로 연간 257천 명 증가한 28,674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업률은 상반기에 2.9%, 하반기에 2.4%로 연간 2.7%, 고용률은 상반기에 62.6%, 하반기에 63.3%로 연간 62.9%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예기치 못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노동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 둘째,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올해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20대와 30~40대 남성 등의 고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제

1) 2023년 경제성장률: 1분기 0.9%, 2분기 0.9% 그리고 3분기 1.4%. 2024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상반기 2.2%, 하반기 2.0%로 연간 2.1% 성장을, KDI가 상반기 2.3% 하반기 2.0%로 연간 2.2% 성장을 발표하였다.

2) 기술한 부문별 경기와 고용 간 관계는 시기에 따라 관계가 변할 수 있고 다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검증을 하고 있다.

주체가 출산 등의 가족형성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표 4〉 2024년 연간 고용 전망

(단위: %, 천 명)

	2023			2024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28,230	28,605	28,417	28,480	28,868	28,674
(증가율)	1.3	1.0	1.2	0.9	0.9	0.9
(증감수)	372	284	328	250	263	257
실업률	3.0	2.4	2.7	2.9	2.4	2.7
고용률	62.2	62.9	62.6	62.6	63.3	62.9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고문헌

- 김지연(2023),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2023),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KDI 경제전망 연구진(2023), 『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 본 「KLI 고용·노동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